

# '명화 · 클래식 음악' 아름다운 만남

문화공감이룸, 24~25일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공연

오는 10월 24~25일, 저녁 7시 30분에 전주에 소재한 문화공간이룸에서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모드 루이스편과 프리다 칼로편 공연이 진행된다.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소극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는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대를 모으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며 진행되고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는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다양한 테마를 담은 명화와 화가, 클래식 작곡가와 음악을 접함으로 인해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문화 예술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10월 첫 공연에는 '장애' 키워드 20세기 캐나다의 대표적인 민속 화가로 오늘날 캐나다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 모드 루이스다. 이번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이윤정, 장소

현, 바이올리니스트 강지수, 첼리스트 양신영, 테너 나영오가 출연하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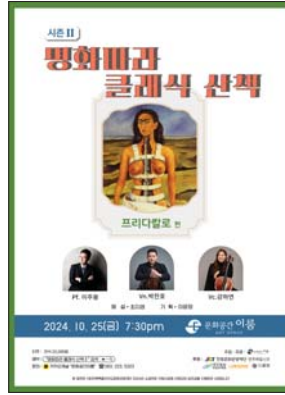
이어지는 10월 25일 공연은 멕시코의 전통 문화와 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를 결합한 원시적이고 화려한 화풍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프리다 칼로다. 이 공연에는 '트리오 숲'이 함께 하며, 팀원으로는 피아니스트 이주용, 바이올리니스트 박찬호, 첼리스트 강하연이 참여하고 있다.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불편과 남편의 문란한 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는데 이를 바탕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에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화려한 화풍과 현실주의적 요소들을 음악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이번 '명화 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에서는 ESG경영 실천 일환으로 종이 인쇄물 대신 웹 포스터로 대체하여 포스터의 공연 편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그 공연의 정보를 바로 들어가 볼 수 있어 매번 버려지는 종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또한, 탄소 배출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자전거를 타고 공연장에 오거나 도보로 온



모드 루이스 편



프리다 칼로 편

관객에게 다음 공연 티켓을 선물로 주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 환경 보호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문화공간 이룸의 기획력이 더욱 빛나는 부분이다.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는 미술 작품에 관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해설을 해주실 전 북일보 전 북타임즈 칼럼리스트이자 현) 한국미협, 전북미협 홍보 기획 이사 겸 전주미협 홍보 기획분과 위원장인 최지영 작

가 사회를 보며 작품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더욱 높여줄 예정이다.

문화공간 이룸 이윤정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차별화된 문화 체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각 명화의 감정과 주제를 담은 클래식 음악을 함께 감상하며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과 다양한 음악 장르가 만나는 공간으로, 도민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한다."며 전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명화 따라 클래식 산책 시즌2' 공연 티켓 역시 전석 2만2,000원이며, 공연 예약은 네이버 예매를 통해서 가능하고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063-223-5323) 문화공간 이룸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 남원관광협의회, '월광포차' 10월 마지막 주말 막 내린다

남원시관광협의회(위원장 박영태) 리플러스(RE-PLUS)사업 추진단이 기획 운영 중인 주말 야간관광 프로그램 '월광포차'가 10월 마지막 주말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번 마지막 월광포차는 오는 26일 '월광포차 락 페스티벌'에 △김장훈 △김종서 △이혁 △K2 김성민 △노브래인이 남원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10월 27일에는 '월광포차 커플스 데이(Couple's Day)' 콘셉트로 낭만적인 무대로, 대한민국 대표 멜로·로맨스 영화인 '클래식'을 상영하면서 영화의 OST를 부른 '자전적 탄 풍경'과 '김형중'이 특별 무대를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서는 ENA 신규 예능 프로그램인 인성역전 리얼리티 '레미제라블'의 촬영이 월광포차 현장에서 펼쳐지며, 10월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3일간 출연자들의 요리가 월광포차에서 판매된다.

월광포차의 위치는 관광투원 서문 앞 경의상가 거리로, 자세한 일정은 리플러스 추진단 인스타그램(@replus202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농지이양 은퇴직불

2024년  
신청·접수

### 지원내용

<p><b>매도</b></p> <p>① 농지 매도 대금 + ② 직불금 매월 50만원/ha * 최대 200만원(4ha 기준)</p>	<p>가입 시 연령에 따라 <b>최대 10년간 지급</b></p>
<p><b>매도 조건부 임대</b></p> <p>① 농지연금 매월 최대 300만원 ② 농지 임대료 ③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 ② 직불금 매월 40만원/ha * 최대 160만원(4ha 기준)</p>	

### 가입요건

**매도 :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  
**매도조건부임대 : 만 65세 ~ 79세 이하인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

###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화누리카드' 적극 홍보 빛났다

전북문화관광재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문화누리카드)이 하반기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15일 재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우수 지역 주관처로 선정, 올해도 9월 말 기준 카드 이용률 상위권을 달성했다. 이는 1위 경기(71.0%), 2위 전남(68.7%)에 이어 3위(67.2%)다.

도내 카드 이용자를 9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타 시·도에 비해 60대(16.3%), 70대(14.9%), 80대(14.1%)가 많은 만큼 지역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 접근성을 위해 다각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장터(연 22회), 도내 가맹점 전화번호부 제작·배포, 전화 홍보 인력 지원 등이다.

올해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매월 카드 발급·이용률을 분석하고, 시·군 지자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2월까지 연 10회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발급·이용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주민센터 총 5곳을 선정, 시상했다. 우수 지자체로는 순창군, 고창군 등 2곳이고 우수 주민센터는 청하면(김제), 부귀면(진안),



순창읍(순창) 등 3곳이다.

특히 재단 양수진 책임은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한 '제11회 통합문화이용권 수기 공모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 씨는 노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운영하는 담당자의 소회와 보람이 느껴지는 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 씨는 "문화장터는 수혜자를 가장 많이 대면하는 기획 사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문화와 복지 양쪽에 걸쳐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담당자들의 노고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대한민국 국악대제' 18일 남원 운봉읍 국악의 성지서 개최

국악 선인을 기리는 제18회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사)민속국악진흥회(대표 강대인) 주관으로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에서 개최된다.

국악대제는 국악의 성지에 위패가 봉안된 악성 육보고 선생과 동편재 판소리 창시자인 가암 송흥록 선생 등 판소리 명창과 명인 등 국악 선인을 기리는 행사로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매년 국악의 성지 악성사에서 개최하는 국악대제는 남원시립국악단 주도로, 점촉례, 점시

례, 분향례, 강신례, 참신례, 초헌례, 축문낭독, 아헌례, 종헌례, 유식례, 속사소경, 사신례, 음복례, 분축례, 기념공연, 묘역참배 등이 진행된다.

국악의 성지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혼이 담긴 성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의를 모아 조성된 곳으로, 2007년도에 개관해 악성 육보고, 가암 송흥록 등 5인의 선인 묘역과 국악인 56분의 위패가 있으며, 국악 관련 전시관과 국악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창군, 제37회 전국 어린이판소리왕중왕대회 참가자 모집

올해의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을 가리는 제37회 전국 어린이판소리왕중왕대회 참가자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하고 판소리 여섯바탕 사실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고창군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회

는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11월 9일 예선을 거쳐 11월 10일 축하공연과 병행하여 예선을 통과한 7명의 어린이가 본선 경연을 한다.

이번 왕중왕전은 KBS전주방송총국이 전국에 방영하여 어린 꿈나무들의 판소리 기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대회 참가는 2023~2024년 국악대회에서 입상한 전국의 어린이로 (사)동리문화사업회(063-561-3517)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